



‘녹색여가 공간’ 국유림에서 마음껏 즐기세요

- 중부산림청, 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숲 해설가 늘리고 숲길·등산로 정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관할 구역인 대전과 충청남·북 주민들이 산림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지역 국유림을 녹색 여가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림에 숲 해설가를 확대 투입하고 숲속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전 및 충청남·북도 지역 국유림을 관할하는 중부지방산림청은 22일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문화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에 따라 올해 8억원을 들여 대전 월평동과 충북 보은 이평리에 산림공원 2곳을 조성하고 이미 만들어진 10곳의 산림공원도 주민 편의의 위주로 바꾼다. 또 관할 국유림에 산재한 숲길과 등산로 381km도 정비해 수요자 위주의 산림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해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숲 해설가 경연대회를 열어 수준 높은 숲 해설가를 양성하고 숲 전문가 강연도 수시로 실시한다. 숲 해설 관련 교재도 만든다.

숲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가 붙는다. 중부지방산림청이 현재 상시 고용 중인 241명의 산림보호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 도시녹지관리원 등의 인원은 내년에 450 여명까지 늘어난다. 또 국민 누구나 산림체험과 휴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지정한 ‘국민의 숲’ 19곳의 산림문화자산을 새로 조사해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사진)은 “대전과 충청남·북도 지역 국유림을 단순한 산림이 아니라 국민에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월 창원 사막화 방지총회에 북한 참석유도”

- 이돈구 청장, UNCCD D-26회견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국제논의 주도” -

이돈구 산림청장은 10월 10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에 북한대표단의 참석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총회를 26일 앞둔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토지황폐화가 진행 중인 북한의 총회 참석을 유도해 동북아 지역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UNCCD '아시아 지역 그룹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북한도 당사국 자격으로 창원총회 주요의제를 검토하고 자국의 토지황폐화 심각성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총회 참석을 권유할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산림면적은 17만ha가 감소하고 황폐산림면적은 121만ha(서울시 면적의 약 20배)가 증가하는 등 토지 황폐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미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을 세운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참석 유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이 쏠릴 뿐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해 다시 관심이 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사막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 이슈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른바 ‘창원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CCD 발전방향을 제시해 세계사막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이 청장은 “산림청은 UNEP(유엔환경개발)와 UNCCD 3차간 ‘녹색성장을 위한 건조지녹화 파트너십’을 맺어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가 심각한 개도국의 산림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는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황사방지 프로그램’도 마련해 동북아 황사와 사막화 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구상도 밝혔다.

이 청장은 “창원 총회는 UNCCD는 물론, UN의 3대 환경협약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해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사상 초유의 회의”라며 “이를 통해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창원이니셔티브를 채택하는 등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는 UNCCD 력 낙가자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흐메드 조그라프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피규어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아힘 슈타이너 UNEP사무총장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구환경기금(GEF)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수장들도 방한해 지구환경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산림경영? 산림청에 물어보세요

- 9일부터 산림청홈피·ARS 산림경영컨설팅 서비스
"산주들에 유익한 정보제공" -

산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산림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산주들을 위한 산림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9일부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산림경영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산을 가꾸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산주, 유휴지 등에 나무나 소득작물을 심으려는 사람, 감 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사람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수나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경영기술지도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경영컨설팅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정보와 기술도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ARS 전화 1588-3249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3)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산림경영컨설팅'으로 들어가면 된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경영 방향을 제시해 사유림 부문 경영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솔잎혹파리 '족집게 방제' 멀지 않았다

- 산림과학원 20년 모니터링결과 토대로 해 발생예측시스템 구축 가능해져 -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주요 해충으로 오랫동안 골치를 썩여온 솔잎혹파리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연구 성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의 최원일 박사팀은 이달 초 그동안의 솔잎혹파리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솔잎혹파리 발생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완료했다. 솔잎혹파리 밀도변화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이 구명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국립산림과학원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7개 고정 조사지에서 솔잎혹파리 밀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모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솔잎혹파리 발생 양상은 강우량과 최고기온 등 환경요인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며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솔잎혹파리 밀도변화 특성과 이에 미치는 주요환경 요인을 분석하면 정확한 발생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 논문은 생태학 분야의 국제적 전문학술지 '파퓰레이션 에콜로지(Population Ecology)'에도 실릴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산림청은 솔잎혹파리 발생예측 모델이 만들어지면 합리적인 병해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구축할 수 있게 돼 다른 산림병해충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앞으로 솔잎혹파리 밀도 관리는 구분된 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워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가꾸나가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초록빛이 살아 숨 쉬는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맑은 계곡에 녹음(綠陰)이 우거진 전라북도 진안군의 운장산자연휴양림을 이달의 추천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했다.

운장산(해발 1126m)은 진안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조선조 성리학자 송익필(1534~1599)선생이 은거했던 오성대가 있던 곳이라 해서 선생의 자 운장(雲長)을 따 운장산이라 불린다.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운장산이 품고 있는 7km 길이의 갈거계곡 입구에 있다. 갈거계곡은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물처럼 물속 바위 하나, 물에 잠긴 낙엽 한 잎까지 고스란히 다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해 보는 이의 눈과 마음도 깨끗해지는 듯하다. 계곡 곳곳에는 제방바위, 마당바위, 학의소, 정밀폭포 등 아름다운 비경이 숨어 있다. 원시 수림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자연미가 뛰어나고 아름답디 활엽수가 우거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방송에도 피서철 물놀이하기 좋은 명당으로 소개됐다.

가을이면 단풍 고운 활엽수들이 밀림처럼 빼곡히 들어찬다. 오색단풍으로 뒤덮인 풍경은 장관이다. 절정에 이른 운장산 단풍을 직접 구경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장산 단풍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운장산자연휴양림의 숲 속의 집은 휴양림 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이다. 그래서인지 숲 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객실들은 나무들과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객실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 온전히 나만의 숲을 누릴 수 있다.

주변관광지로는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해서 마이산이라 불리는 마이산 도립공원(자연휴양림에서 30분), 길이 험한 옛날에 구름 속에 해만 오락가락한다 해서 운일암(雲日岩), 해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반나절에 불과해서 반일암(半日岩) 등으로 불리는 기암괴석(자연휴양림에서 20분),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로 875년(신라 헌강왕) 무염이 창건한 천황사(자연휴양림에서 5분) 등이 있다.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정보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번지

구역면적 : 1958 ha

개장연도 : 2000년 6월 29일

수용인원 : 최대 600명/1일, 최적 300명/1일

이용문의 : ☎ (063)432-1193

오시는 길 : www.huyang.go.kr참조